



인천~제주 뱃길 다시 열리나… 타당성 용역 추진

인천항만공사, 용역업체 선정 공고 게시
여객·화물 등 수요 분석으로 복원 모색

선사 면허 반납 이후 2년 가까이 멈춘 인천~제주 항로의 재개를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달 27일 '인천~제주 항로 재개 타당성 및 경제성 조사'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 공고를 나리장터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용역 금액은 5000만원으로, 이달 중에 제안서의 적격성과 가격을 심사해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용역을 통

해 인천~제주 항로에 대한 경제성과 사업성, 시장 여건 등을 검토하며, 향후 정책적 판단과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용역 내용은 항로 운영 여건 분석, 여객과 차량, 화물 수요 예측과 시장분석, 경제성과 사업성 분석, 정책과 제도 지원방안이다.

또한 과거 인천~제주 항로의 운영 실태와 중단 원인을 분석해 선사

공모에 반영할 계획이다. 완도~제주

등 장거리 연안항로의 운영 방식을 비교·분석해 인천~제주 항로의 경쟁 여건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제주 간 교통 수단별 이용현황을 기반으로 해상 교통으로의 전환 잠재수요를 산정한다. 여객의 목적과 계절, 요일별 동향을 세분화해 수요 변동요인을 파악하고, 인천~제주 항로 중단 이후 물류 흐름과 복합운송 비용을 비교해 복귀 가능 수요와 효율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인천~제주 항로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중단됐다가 2021년 12월 하이 тек스스토리지 선사의 비

온드트리스트호가 취항하며 복원 됐다. 그러나 6차례 고장과 선사의 경영 문제로 2024년 1월 면허를 반납, 다시 중단됐다.

이후 2년 가까이 대체 선사를 찾지 못하는 상태로, 대체 여객선을 투입하겠다는 선사도 없었고 2차례 화물선 공모까지 냈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로 인해 연안여객터미널(제주 행) 운영은 현재 접정 중단 중이다.

인천~제주 항로가 중단된 이후 수도권과 제주를 오가는 화물은 목포 등지로 해상 운송된 후 수도권 까지 육상으로 운송되고 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2026년 사업 참여자 모집

제주시는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12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4개 유형 총 1만1258명이다. 노인공익활동사업 7280명, 노인역량활용사업 3320명, 공동체사업단 478명, 취업 지원(취업 알선형)에서 18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사업 유형별로 ▶노인공익활동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공동체사업과 취업 지원(취업 알선형)은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6개 민간 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세대 구성, 활동 역량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이다.

문의는 제주시 노인복지과(728-8032~5)에서 가능하다. 문미숙기자

제주 세번째 워케이션 공공 오피스 조성

제주시 함덕리에 개소

제주도가 세 번째 워케이션 공공 오피스를 조성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서 제주 워케이션 공공형 오피스 3호점인 '아일랜드 워크랩 함덕' 개소식을 열었다.

함덕 오피스는 제주도가 조성한 세 번째 공공형 오피스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해수욕장인 함덕 해변과 인접해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복합혁신센터와 제주시 원도심 내 옛 코리아극장에도 공공 오피스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개소식에 참석한 오영훈 제주지사는 "워케이션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민간 워케이션



공공형 오피스 '아일랜드 워크랩 함덕'.

시설과 공공형 오피스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워케이션 참여자는 1인당 평균 4박 5일 체류하면서 항공료를 제외한 약 64만원을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워케이션 인구가 10만명에 이

를 시 생산유발효과는 862억원, 부가치유발효과는 306억원, 취업유발효과는 927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국민의힘 제주도당 사무처장 공개 채용

오는 4일까지 지원자 접수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사무처장을 공개 채용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정당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다.

지역 연고나 관련 경력을 가진 지원자, 정당·언론·공공단체·기업 등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선 가점률 준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업무 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근로 조건은 당내 규정에 따른다.

응모 희망자는 오는 4일까지 이

메일 또는 우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제안서 등 당 소정 양식과 학력·경력 증빙자료 일체다.

서류 합격자 발표는 12월 10일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이후 12월 17일 또는 18일에 면접을 치러 12월 2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 사무처장은 2개월째 공석인 상태다. 이명수 전 사무처장은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과 갈등을 빚은 끝에 지난 9월 26일 중앙당으로 대기 발령됐다.

이상민기자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국가폭력 치유 작품 전시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1일 센터 2층에서 사진·미술·문학 치유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모은 전시 '치유를 나누다, 마음을 잇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이 치유 과정에서 직접 남긴 글과 그림, 사진을 통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센터는 전시를 통해 트라우마 치유의 경험이 사회 전체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치유성과 아카이빙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오소범기자

毛羅始祖 乾始大祭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환절기에 道民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財團에서는 毛羅(毛羅)를 創始하신 三乙那의 偉業을 기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번영과 道民의 안녕을 기원하는 2025年度 毛羅始祖 乾始大祭를 다음과 같이奉享합니다.

- 다 음 -

○ 일 시 : 2025년 12월 10일(수) 11:00

○ 장 소 : 삼성사 혈단 (제주시 소재 삼성혈)

현관 진명기(秦明基)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아현관 정태근(鄭泰根)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장)
종현관 강승민(姜勝珉)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사관 고문화(高文和) (재단 감사)

※ 2025. 12. 10. 건시대제 시 제주도민은 삼성혈 무료 관람입니다.

2025. 12. .



法人 高·梁·夫三姓祠財團

理事長 高錫根

사랑나눔 랜선바자회

백혈병·소아암 및 난치병 환아들을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 2025.12.19~12.21(3일간)

시간 AM10:00 - PM18:00

장소 이룸갤러리 (제주시 일주서로 7827-1)

바자회 수익금은 환우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전액 사용됩니다.

온라인주문 | 11.19~12.21

행사 및 문의 064-752-3300 | FAX 064-752-3303 | Email jejubh16@daum.net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